



Morning Letter

2012. 10. 24

Strategist **곽병열**

Tel. 368-6132

kbr87690@eugenefn.com

미국 기업실적 전망의 반전가능성은?

전일 듀퐁발 어닝쇼크로 다우지수는 -1.82%나 급락했습니다. 표면상 미국의 3Q12 실적시즌 중 어닝프라이즈 비율은 60%(10/23일 기준)를 보이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IT기업과 금주에는 듀퐁까지 감월 등 조직축소와 보수적인 판매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4분기 기업실적 전망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4Q12 실적전망 하향조정의 주요인은 IT업종

미국 S&P500 구성종목군의 4Q12 블룸버그 순이익 전망치(10/19일 기준)는 전년동기비 +9.3%(전월말 +10.4%, 7월말 +11.2%)로 어닝시즌 개막 이후 하향조정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하향조정을 주도하는 섹터로는 IT +5.5%(전월말 +10.4%, 7월말 +12.7%), 산업재 +2.1%(전월말 +4.4%, 7월말 +4.3%)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섹터는 전월말 대비 반토막날 정도로 하향조정 폭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IT업종의 경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하향조정되었는데, 상당부분 인텔-IBM 등의 부정적인 가이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인텔-IBM과 같은 전통적인 PC산업의 비중이 큰 IT주들의 침체는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최근 D램 산업의 후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전통적인 PC산업의 침체는 스마트 디바이스 활황의 그림자를 대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대표주의 판매 가이드가 미국 4Q12 실적전망 하향조정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데요.

전일 공개된 아이패드미니의 확장성과 아이폰5 효과의 연속성이 미국의 연말특수 기간에도 통할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애플-아마존 실적발표(25일)를 통해 확인될 것이구요. 전주의 전통적인 PC주보다는 긍정적인 가이드를 나타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Fiscal Cliff의 결정변수는 미국 대선-총선 결과

미국 기업들이 보수적인 가이드를 제시한 밑바탕에는 분명 Fiscal Cliff(이하 재정절벽)를 고려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관련 세미나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는 미국 대선-총선 결과물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선-총선의 결과물이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11/6일 이후에는 관련된 불확실성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orning Letter는 전일 해외증시, 당일 모닝 미팅을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작성했으니 참고바랍니다.



Strategist **곽병열**

Tel. 368-6132

kbr87690@eugenefn.com

Morning Letter는 전일 해외증시, 당일 모닝 미팅을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작성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금일 모닝미팅에서는 호남석유, 윈도우8 관련 보고서 등이 눈에 띕니다

첫째, 호남석유의 3분기 실적은 원료 가격하락 효과로 전분기대비 흑자전환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4Q12 전망은 개별 실적은 양호하나 케이피케미칼 부진으로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석유화학 시황의 빠른 개선은 보이지 않지만, 순수화학업체 중에서는 동사의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해, 주가 하락시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성에 대한 탐방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중공업 부문의 저가수주물량의 기소화 효과로 인한 턴어라운드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둘째, 윈도우8 관련 스몰캡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10월 26일에 발매예정인데, 윈도우8의 등장으로 키보드와 마우스 대신 손을 이용한 터치 디스플레이가 중대형 디스플레이에도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7인치 이상 중대형 터치스크린 관련업체가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